

반려인 표심 잡자...대선후보 ‘반려동물 공약’ 경쟁

NEWS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이재명 “동물복지법 제정·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국힘, 동물병원 비용 온라인 게시·펫티켓 안착

선택! 6·3 대선 D-12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반려동물 양육가구 표심잡기에 나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리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

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 장소인 인천으로 이동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표준 수가제 도입과 관련해 수의계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나’는 질문에 “반려인들이 매우 갈망하는 제도지만 정부가 강제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표준 수가제는 정부의 일종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먼저 접근하고 추후에는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해 일반 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험 제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으로 동물 치료하는 것도 지출하겠다는 것이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용을 나눠 갖는 제도를 설계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와 유기 동물 입양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 가격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해 진료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입양을 지원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펫 공원·펫 카페 조성, 펫 위탁소 운영 확대, 반려동물의 날 제정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마개 착용 등 ‘펫티켓’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공약도 내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전남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초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돌봄 국가책임제·처우개선 약속 이재명 후보 지지

전남 사회복지·돌봄중사자

전남지역 15만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중사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어르신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를 일궈낸 주인공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자살률,

간병파산 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통합돌봄 확대를 통한 동네 돌봄 편의 증진, 간병비 부담 완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등을 통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돌봄중사자들은 “이 후보의 돌봄 국가

책임제 약속 외에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제시했던 돌봄중사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 임금 보장 약속 역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능 강화·위상 정립, 복잡한 고시의 수정 보완, 처벌 위주에서 지원과 협력적 관리로의 전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호봉제 도입 등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백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동구·화순, ‘메디컬 실리콘밸리’ 탈바꿈

전남대병원, AI·바이오 융합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추진

전남대학교병원이 광주 동구와 전남 화순을 ‘메디컬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2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본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과 함께 전국 최척의 지리적 입지를 갖춘 동구와 화순을 중심으로 첨단 의료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합한 ‘광주·전남 AI·바이오 융합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이 아닌 첨단재생의료와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치료기술 개발과 상용화, 입자치료, 정밀진단 기술 중심의 암 치료 패러다임의 혁신이 목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는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도심집적형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포함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광주·전남 지역의 기존 AI 인프라와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을 융합해 국가 의료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4월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하며 명실상부한 메디컬 혁신의 중심지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AI·바이오 융합 메디컬 클러스터는 3가지 핵심 사업인 AI 기반 의료기기 혁신 창업 클러스터 구축, 첨단재생의료 산업화 혁신 허브 구축, 아시아 암 허브 클러스터 구축으로 구성된다.

AI 기반 의료기기 혁신 창업 클러스터 구축은 2000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혁신 Lab, 닥터 메이커스 개발센터, 사업 적합성·유효성 평가센터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AI 기반 설계·분석부터 임상 실증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현장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제품 제작,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특징이다.

또 첨단재생의료 산업화 혁신 허브는 광주 동구와 전남 화순 일원에 2000억원을 투입해 첨단재생의료 실증센터와



공동 GMP 시설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에선 세포치료, 엑소좀치료, 조직공학·융복합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기술 실증, 심의지원, 교육, 병원연계 임상 실증을 지원하며 관련 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화순전남대병원과 함께하는 아시아 암 허브 클러스터 구축의 경우 전남 화순 일원에 1조원을 투입해 입자 치료와 Bio-AI 기반의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남대병원의 AI·바이오 융합 메디컬 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혜택	V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숙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배) 추가 중정	
사우나	무료 사용	
피트니스	무료 사용	
커피숍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회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남일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전예약)	
광주시내버스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광주버스방송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일간지전라도인	3년 무료구독	1년 무료구독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존지 "광남일보" 중합광고대행사 "메드하임" 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케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HOTEL 아트하임 (구·백문리(광남호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